

눈물로 그려진 정치의 계보학

[서평] 이호걸(2018), 『눈물과 정치』, 따비, 408쪽.

김영찬*

1.

이호걸의 『눈물과 정치』는 ‘눈물’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 비평이다. 저자는 연극과 영화, 문학과 드라마를 가로지르며 눈물의 정치성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전개한다.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청탁 받았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자가 오래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한 분야가 ‘신파’였음을 일찍이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는 나로서는 이 책에 대해 뭐라고 논평하는 일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와중에 문득, 어쩌면 눈물에 대해서라면 한 마디쯤 보탬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가당찮은 생각을 하게 됐다. TV드라마를 보면서 톡하면 눈물을 쏟곤 할 정도로 눈물이 많은 인간이니 어쩌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합리화를 하던 와중에, 몇 개의 장면이 하나씩

*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떠올랐다. 1990년대 후반 무렵쯤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절에 나는 영상 자료원에서 1960년대 한국영화 20편 정도를 한꺼번에 몰아서 본 적이 있었다. 멜로드라마, 전쟁영화, 농촌계몽영화, (심지어) 코미디 등 장르를 불문하고 그 영화들에는 모두 눈물이 흥건했고, 하나같이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들이었다. 그 영화들을 보면서 나는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았다’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영화들의 뻔하고 관습적인, 때로는 이데올로기적인 클리셰를 이성적으로는 뻔히 인지하면서도 매번 영락없이 꼭 그런 장면들에서 (결코 울지 않으리라는 나의 굳은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헤아려보면 이런 것이겠다. 눈물은 힘이 세다. 이성 따위는 단번에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다. 영화야 그렇다고 처도, 예컨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2008)를 읽었을 때도 여지없었다. 울어선 안 되는 거였다. 『엄마를 부탁해』는 본격소설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통속 가족멜로의 구조와 감성을 장착한 소설이다. 이를 뻔히 알고 경계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선가 나는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이때도 눈물은 역시 이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흘러내리던 거였다. 이때 이성을 무디게 만들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지점은 ‘가족’과 ‘모성’이라는 익숙한 코드, 그리고 그와 맞물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자책과 죄의식, 연민 같은 것이었겠다.

물론 다른 눈물도 있다. 갓 스물을 넘긴 해에 선배들에게 이끌려 광주 학살 비디오를 몰래 숨어서 보면서 분노와 공포로 흘렸던 눈물(똑같은 눈물을 2017년에 영화 <1987>에서 김태리가 흘리고 있었다). 1991년 같은 학과 후배였던 김귀정이 시위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흘렸던 자괴와 자책과 미안함과 연민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흐르던 눈물. 그리고 최근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나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으면서 속수무책 흐르던 눈물.

다양한 색깔과 결을 갖는 이 수많은 눈물들을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를테면 눈물은 현실 속에서도 흐르고, 문예작품 속에서도 흐르며, 그 작품을 보는 관객/독자의 눈에서도 흐른다. 이 다양한 눈물‘들’의 맥락과 의미를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경계 짓고 규정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전에 무엇보다 나는 ‘눈물’과 ‘정치’라는, 언뜻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들의 매력적인 조합에 이끌렸다. 눈물이 인간의 원초적 감정의 자극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현상이라면 정치는 고도의 계산과 의식적인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눈물이 감정의 산물이라면 정치는 이성과 합리의 산물이다. ‘눈물’과 ‘정치’의 조합은 이 책이 처음부터 그런 식의 이성 대 감정, 합리 대 비합리라는 익숙하고 낯은 근대적 이분법을 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눈물이 갖는 본원적인 정치성, 그리고 정치에 의해 포획되거나 생산되고 동원되는 눈물의 역학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 책에는 기본 전제로 깔려 있다. 눈물이 정치성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저자가 이 책의 어디에선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해방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어떤 지점에서 그런가. 나는 궁금했다.

2.

이호걸의 『눈물과 정치』는 저자의 말 그대로 “감정, 영화, 문화, 가족, 대중, 사회, 정치, 근대, 한국 등을 교차하는 수많은 질문을 ‘눈물’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일관되게 던지고자 했던 것의 결과물”¹⁾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한국의 근대성 혹은 근대가 생산한 사회 문화 예술 정치 등의 모든 영역을 ‘눈물’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누비려는 야심찬 기획의 산물이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왜 하필이면

1) 이호걸(2018), 『눈물과 정치』, 따비, pp. 5-6. 아래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뒤에 쪽수만 표기한다.

‘눈물’인가? 왜냐하면 저자가 보기에 한국의 근대는 고통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눈물로 얼룩져왔으며 그래서 “20세기 한국인에게 눈물은 현실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현실을 수용하는 주요한 틀”(p. 14)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를테면 20세기 한국의 근대를 대중적 집단 감성 혹은 통속적 감수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밀고 나가는 것은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한국의 근대를 견뎌내고 움직여나간 동력이 감성에 의해 구축되는 대중들의 집단적 주체성이며 그 근원에는 마음을 흔들고 실천을 추동하는 눈물의 역능과 정치적 잠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저자의 흥미로운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신파성’이라는 개념이다. 신파성은 일반적으로 통속적 감수성이 주가 되는 한국적 멜로드라마의 재현관습이라고 이해되어왔는데, 저자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한국 근대의 눈물의 기나긴 흐름을 나는 신파(新派)라고 부를 것이다.”(p. 55) 즉 저자는 신파를 단순히 특정 문예물의 재현관습이나 양식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감정을 기반으로 현실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흐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자는 신파적 통속극에서 흘렀던 눈물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도처에 흐르고 있었음을 포착한다. 예컨대 눈물은 “순문학과 같이 진지한 예술적 태도가 지배하는 영역”(p. 19)에도 여지없이 흐르고 있었고, 현실에서도 대중들은 고단한 현실과 싸우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그렇게 신파적 눈물은 도처에서 흐르고 있었는가? 무엇보다 슬픔과 고통을 유발하는 현실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파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생성된 대중적인 집단 심성의 주요한 일부”(p. 203)였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에 전형적인 가족적 눈물과 그것이 수반하는 감정들이 지난 세기 한국인의 정치적 주체성의 주요한 기반을 이루게”(pp. 18-19)되었고, 그리하여 눈물은 20세기 한국인의 집단적 심성과 감정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비유컨대) 주체화의 분비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그런 신파의 핵심에 있는 것이 가족주의와 감상주의다. 그 둘은 “신파가 담고 있는 주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p. 59)이다. 특히 가족의 상실이나 위기와 결부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강력한 감상성을 만들어내는 눈물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가족이 단지 근대사회의 상상적 기초를 떠받치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단한 근대를 고통과 슬픔으로 헤쳐나왔던 대중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포기되지 않는 최후의 심정적·윤리적 지지대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러한 가족주의에 기반한 감상성과 그 한가운데서 흘러왔던 눈물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저자는 오히려 눈물의 윤리적 잠재성과 역능을 역설하며 “신파적 감상성이 긍정성으로 가득함을 드러낼 것”(p. 20)이라고 말한다. 눈물은 “정치적 실천의 기반이 되는 추진력을 제공”(p. 35)하며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힘”(p. 38)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개인의 눈물이 아닌 공동체의 단위에서 흐르는 눈물은 강력하고도 특별한 윤리적·실천적 추동력을 가지는데, 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성원들은 눈물을 함께 흘림으로써 위기가 초래하는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안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해소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눈물의 중심에는 공동체의 코나투스, 즉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집합적 열정의 작용이 있다.(p. 39)

신파적 감상성과 눈물에 잠재하는 정치적·윤리적 역능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이러한 관점은 신파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과도 확연히 구별된다. 예컨대 신파를 “억압적 세계 속에서 기초적 욕구·욕망이 억눌린 무력한 자아가 그러한 세계의 억압적인 질서에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학과 자기연민의 태도”²⁾로 규정하

는 이영미의 관점이 그런 것이겠다. 신파가 세계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체념, 무력함, 자학, 자기연민, 위안이 주가 되는 미감이라는 이러한 규정에 반해, 저자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신파의 역설을 강조한다. 즉 신파에는 언제나 현실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힘과 그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힘 사이의 긴장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눈물을 통해 실천을 추동하는 신파의 논리가 집단화될 때, 그곳에서 눈물을 매개로 작동하는 집단적 감응이 정치적 실천을 촉발하는 감정적 원천으로 전환되어왔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 논리다.

저자에 따르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고 무한히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는 “눈물의 물질성”(p. 77)이다.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에서 수많은 정치적 요청이 그러한 눈물의 힘에 호소해왔다. 눈물은 다양한 정치적 요청들에 의해 포획됨으로써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억압적인 현실을 견디고 돌파하는 대중의 공공적 연대의 감정을 북돋우고 해방의 열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정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눈물이 있었고, 눈물이 흘러넘치는 곳에서 정치가 작동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 “대중문화의 장을 훑어 적시고 실제의 삶으로 흘러넘쳤던 그 눈물”(p. 317)의 바다를 헤쳐가며 눈물의 정치성과 잠재적 역량을 포획하고 동원해온 다양한 정치적 실천의 지도를 그린다. 민족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정치적 실천들이 어떻게 눈물로 호소해왔는지, 또 대중들을 동원하는 데 그 신파적 눈물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이 책은 문학, 영화, 연극, 수기, 전기, 르포르타주 등을 망라한 방대한 텍스트들의 숲을 누비며 분석한다. 그렇게 이 책이 그려놓은 지도는 세밀하고 친절하다. 눈물과 정치의 관계와 역학을 종횡으로 엮어가며 그려진 이 눈물의 지도를 우리는 눈물의

2) 이영미(2016),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p. 38.

정치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 책의 무수한 장점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엔 주어진 지면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품었던 일말의 의문을 말미에 보태는 것이 어쩌면 서평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에 대중적 통속극의 특정 양식이나 재현관습쯤으로 이해되었던 ‘신파’ 개념을 본격문학과 실제 현실의 영역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적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이 책의 저자처럼 가족주의적 상상력과 감성, 그리고 가족의 위기에 직면해 흐르는 눈물을 모두 신파적인 것이라 한다면, 신파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버린다. 문학텍스트에 국한해 말하자면, 예컨대 저자는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1927)의 주인공 박성운이 흘리는 눈물이 가족의 상상과 연관된 것이라 해서 신파적인 눈물이라 규정(pp. 209-210)한다. 그런가 하면 신경향파 문학에 대해서도 “계급착취와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족의 고통, 슬픔, 눈물을 경유해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신경향파는 매우 신파적이었다.”(p. 203)고 주장한다. 그러나 똑같은 가족(주의)과 연결된다 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흐르는 눈물은 실로 다종다기한 질감과 색깔, 지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고급문학과 통속문학(혹은 극)의 인물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 질감과 효과에서도 뚜렷이 구별된다. 물론 저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과잉에서 흘러나오는, 그리고 승화되어 해소되기보다 정치와 접속하는 눈물을 다른 눈물과 분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논지에 충실하자면 (가족과

연관된) 눈물을 재현하는 근대의 모든 문학텍스트들이 모두 신파가 되어 버린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신파 아닌 것이 없어지게 될 때, 역설적으로 신파는 그 개념적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기우일지도 모르나, 신파라는 개념에 축적되고 유착되어 있는 기존의 이해와 통념을 벗어나기 힘든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신파라는 개념은 너무 넓은 것이지만 또 거꾸로 너무 좁은 것이기도 하다. 눈물은 여러 감정적 원천을 갖는다. 분노, 공포, 슬픔, 고통, 우울, 자책, 연민, 도취, 열광, 감격, 용서, 화해, 자학, 피학, 자기희생 등 눈물을 유발하는 감정과 상황들은 무수하다. 이 수많은 감정 혹은 정동들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눈물의 스펙트럼을 ‘신파’라는 개념의 그물로 포착하기엔 그 개념의 폭은 너무 협소하다. 즉 정치 비평이자 눈물 비평으로서 이 책의 폭 넓은 가치와 확장성을 오히려 신파라는 개념이 제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신파’라는 개념에 얽매이기보다 그에서 해방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논의를 구체화하고 폭을 넓혀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문은 이미 말했듯이 이 책의 논지가 갖는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한데, 그와 관련한 다른 의문이 또 하나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신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왔다. 하나는 여성적인 눈물의 흐름인 여성(feminine)신파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적인 눈물의 흐름인 남성(masculine)신파다. 전자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실천을 추동한다면, 후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경향이 있다.(p. 55)

근대 한국의 눈물의 흐름 전체를 조망했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 신파지만, 정치적 눈물의 흐름에서는 남성 신파가 더 두드러진다. 신파가 기원하는 가부장제 특유의 성별 분할에 따를 때 정치란 남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p. 133)

여성의 눈물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남성의 눈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근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정치가 남성의 영역으로 성별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파의 눈물이 실제로 그러했다는 현상 기술로 읽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이 책의 다른 곳에서도 종종 드러나는 바지만, 저자의 가치판단 속에 이미 그런 방식의 눈물의 성별화가 개재해 있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남성의 눈물이 여성의 눈물과는 달리 “가족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추동”하고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의미 또한 적극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서술(p. 52)을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여성 신파와 구별되는 남성 신파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해온 저자의 그간의 작업과 눈물이 추동하는 정치적 실천을 강조하는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편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눈물을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남성의 눈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식의 가치 부여에 기존의 성별 이분법을 그대로 승인하는 남성 중심적인 젠더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지금 젠더의식의 문제를 지적하곤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이 저작의 논지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나 자신도 그 점에서 무지한 데다 자유롭지도 못한 처지에서 이를 더 문제 삼을 능력도 요량도 없다. 다만 이런 프레임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만은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신상옥의 영화 <상록수>(1961)가 그런 경우

다. <상록수>는 농촌의 빈곤과 낙후성 타파라는 대의를 위해 일신의 안녕과 행복을 반납하는 한 여성(채영신)의 눈물겨운 희생을 그리는 영화다. 이 영화는 도덕적 의무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한 여성의 자기희생에 촉발된 눈물로 흥건하다. 이때 채영신이 흘리는 눈물은 여성의 눈물이지만 그것은 적극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눈물이며 탈후진 근대화라는 계몽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정치적 눈물이다. 그리고 채영신이라는 한 여성의 눈물은 그를 추모하는 많은 남성들의 눈물과 합쳐지며 빈곤한 자들을 위해 자기를 내던지는 모성적 숭고의 이미지를 완성한다.³⁾ 이때 <상록수>의 모성적 숭고의 이미지에 촉발되어 흐르는 눈물은 여성적 눈물인가 남성적 눈물인가? 이는 물론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과 텍스트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흘렸던 여성‘들’의 눈물과 그것이 지닌 정치적 실천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데 이 책의 성별화된 프레임이 혹 너무 허약한 것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의문은 의문에 그치는 것일 뿐, 그것이 이 책의 가치를 가리지는 못한다. 근대 한국의 문화와 예술, 정치와 사회, 의식과 감정 등의 다양한 영역을 눈물이라는 키워드로 관통하는 이호걸의 『눈물과 정치』는 기존 학술적 작업들의 관성에서 벗어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작업이다.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정치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이 저작은 한국의 근대를 밀고나갔던 다양한 정치적 움직임 속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고

3) 영화 <상록수>의 모성적 숭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김영찬(2017), 「저개발의 모더니티와 숭고의 정치학 — 신상옥의 영화 <상록수> 읽기」, 역락.

통과 슬픔, 비애와 소망이 들끓고 있었는지를 새삼 감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눈길이 가는 것은 눈물에 대한 저자의 고유한 관점이다. (통속극에서 보는 것처럼) 과잉으로 흘러넘치는 눈물은 보통 체념과 무력함의 산물로 이해되어왔고 그런 측면에서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었다(나 또한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그 대중의 눈물을 한국의 근대를 움직여온 힘의 원천으로 새롭게 발견한다. 이것은 눈물의 재발견이자 그것을 통한 근대 정치적 실천의 새로운 재구성이다. 저자는 눈물이 비록 대중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눈물을 쏟아내는 다수 대중의 감정이 한편으론 현실을 버텨내고 세계를 만들고 움직여가는 원천이자 동력이기도 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눈물의 흐름을 성찰하되 존중해야 한다.”(p. 316)는 저자의 주장은 그래서 간단치 않은 무게로 다가온다. 이 책의 저자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